

허동수 회장, 공정위 자율관리위원장 피선

GS칼텍스는 허동수 대표이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<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>과 관련 신설된 <자율관리 위원회>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6월24일 발표했다.

자율관리 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<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>의 표준모델을 제정해 관련기업에 도입을 권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.

자율관리 프로그램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, 명확한 계약, 제품의 안정성, 개인정보 보호, 소비자피해 발생 사전예방, 피해발생 상담 및 구제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.

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해 조병량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, 이행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,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, 이승신 소비자보호원장 등 기업, 학계, 시민단체, 사업자 단체, 법조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6/27>